

Daily Auto Check

2020. 10.23(Fri)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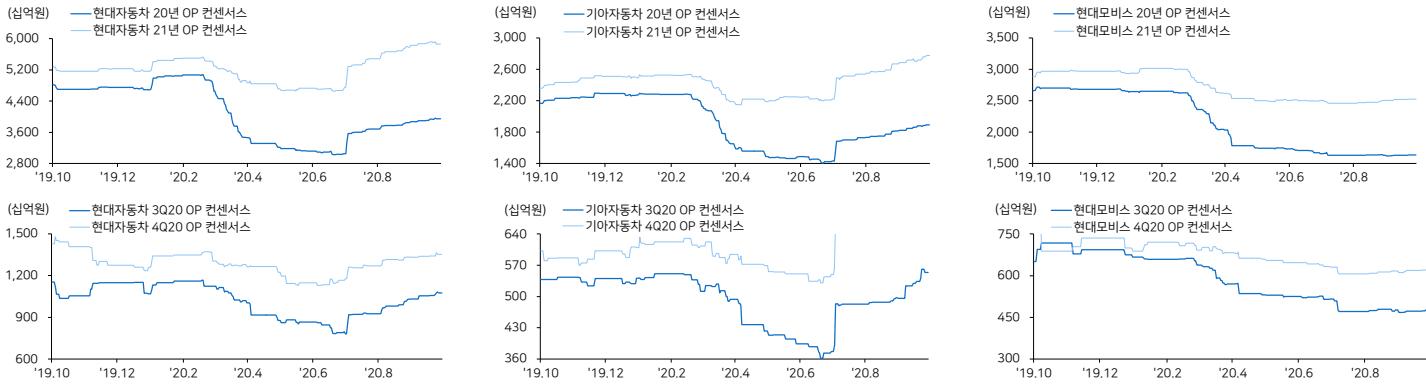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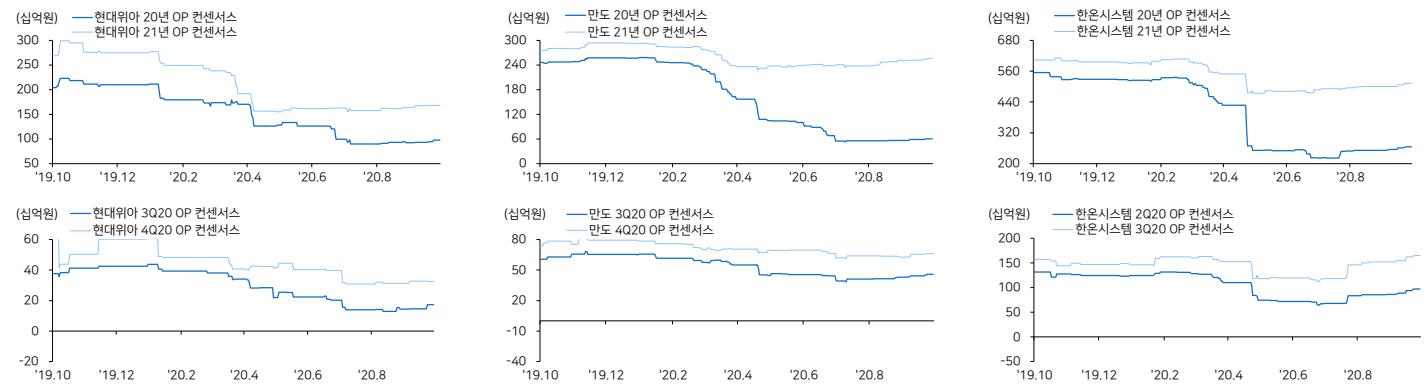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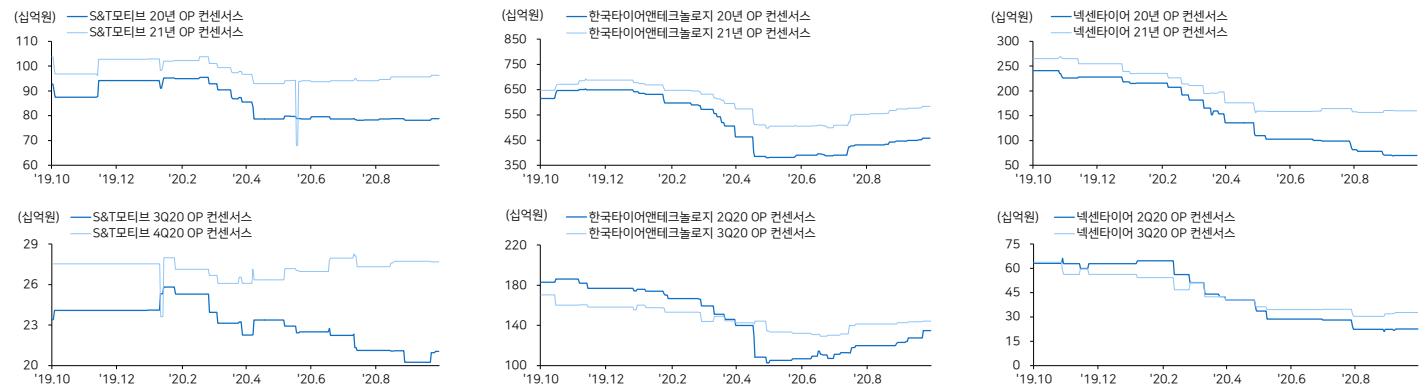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가입자 200만 돌파 (아이뉴스24)

현대차그룹은 커넥티드 카 서비스 국내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발표. 이는 지난해 6월 100만명, 올해 4월 150만명 달성을 이어 6개월 만에 기록한 수치.
<https://bit.ly/3jICfp6>

현대차, 운전 연수 앱 출시… 검증 강사·초보자 연결 (동아닷컴)

현대자동차가 경찰 및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전 연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현대차와 경찰청은 지난 비대면 일부 협약식을 열고 초보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신 운전 연수 캠페인 진행 등을 목표로 상호 협력.
<https://bit.ly/37wteAY>

코나 전기차 화재 불안… 현대차, 리콜 재공지 (마니S)

현대차가 최근 잇따른 코나EV 화재의 초기 수습을 위해 나섰음. 현대차는 지난 16일부터 코나 전기차의 리콜이 진행됐을 때 책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소비자 반응마저 시큰둥하자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리콜 캠페인을 진행.
<https://bit.ly/37whDQ1>

"스스로 교차로에서 회전"…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기능 공개 (연합뉴스)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 FSD)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 기능을 써본 일부 고객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올림.
<https://bit.ly/34m4Jv5>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열석 현대글로비스, "기업가치 올려라" (CEO스코어데일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취임 이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거친 현대글로비스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https://bit.ly/3jRClt>

"현대·기아차 3.4兆 품질비용 반영, 신용도 영향 미미" (서울경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3·4분기 재무제표에 3조4,000억원에 달하는 품질비용을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다만 신용등급이 하락할 만큼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덧붙임.
<https://bit.ly/2IMNIEP>

자동차 산업, 코로나·전기차에 떠오르는 노-노 갈등 (조선비즈)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에서 회사 내 또는 회사 간 노-노 갈등 양상이 차츰 불거지고 있음. 코로나19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강경 투쟁에 나서야 할지 아니면 회사와 타협해야 할지 노선 갈등이 심해진 것.
<https://bit.ly/37yKze>

화웨이, L4급 자율주행시스템 2년 내 상용화 (ZD넷코리아)

화웨이가 AI 자율주행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음. 21일 중국 자동차 전문 언론 차동시는 화웨이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2022년 1분기 양산 차에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 사실상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L4급 자율주행시스템 솔루션.
<https://bit.ly/3jmGt9j>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